

아내의 갱년기

글| 최용건(화가)

항상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던 집사람이 요즘 들어 무기력증을 호소한다. 까닭 없는 의욕상실과 함께 일을 하기가 싫어졌다고 한다. 심지어는 식사 후의 설거지 까지도 하기 싫어졌다고 한다. 혹시 지난겨울 팔을 다친 후 장기간에 걸쳐 겪고 있는 불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그 나이쯤에 이르면 대체로 겪는다고 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갱년기증상이라,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막상 어떤 증상인지 잘 짐작되지 않는다. 사춘기처럼 철들 나이쯤이 되면 찾아오는 통과의례성 육체적, 정서적 이상실조? 그저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내보다 인생 선배인 나는 사춘기 이래 여태껏 사추기니 갱년기니 하는 나이에 따른 어떠한 정서적 특이증상도 겪고 있질 않다. 그러나

까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마음을 뒤흔들던 사춘기 이래 나의 감성

활동은 더 이상의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정상가동중이다. 세상

에 대한 변함없는 시각이 있다면 삶이란 찰나적인 것이

어서 풀잎위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며 하루라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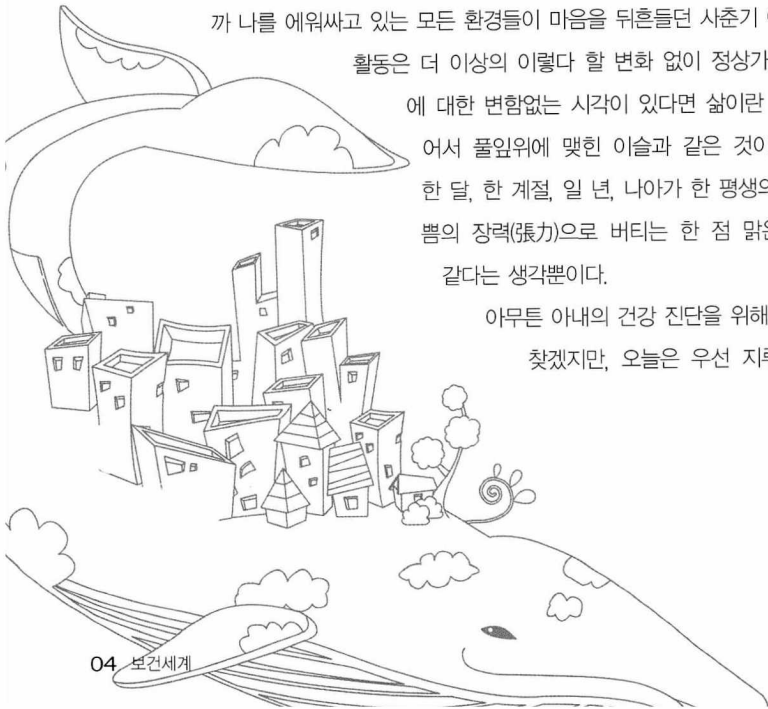
한 달, 한 계절, 일 년, 나아가 한 평생의 세월 역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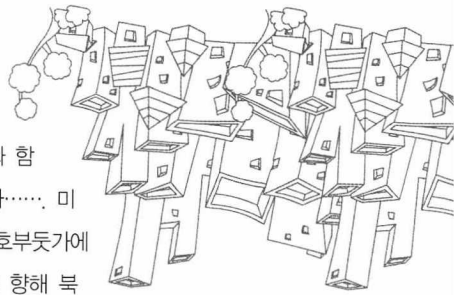
쁨의 장력(張力)으로 버티는 한 점 맑은 초로(草露)와

같다는 생각뿐이다.

아무튼 아내의 건강 진단을 위해 조만간 병원을

찾겠지만, 오늘은 우선 지루한 장마 기간





동안 침체되어 있던 기분을 쇄신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바깥나들이를 하기로 하였다. 행선지는 바닷가……. 미시령 터널을 지나 속초 시내로 접어들었다. 청초호부둑가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시내를 관통하여 화진포를 향해 북으로 달렸다. 많지는 않았으나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바닷가는 제법 붐볐다. 화진포 해수욕장은 동해안 최

북단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매번 와 보아도 풍경이 호젓하리만치 청정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나의 취미는 친숙하게 느껴지는 아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 특히 오늘처럼 시원한 무채색 문양의 치마가 잘 어울리는 아내를 찍는 일은 더욱 즐겁다. 식당에 들어 점심식사를 하려는데 건달풍의 사나이가 아내 쪽으로 불필요하게 시선을 고정시켜 나는 자주 눈썹을 곧추 세워야만 했다.

모래사장은 깨알같이 만만한 존재들의 무의지적인 집합체여서인지 부드럽기 한없이 그 위에 누우면 아이들처럼 구르고 싶어진다. 마음이 단순해진다. 멀리 푸른 수평선 너머론 흰 구름이 흘러갔다. 아내에게 선글라스를 써 보라고 하였다. 선글라스는 햇빛의 반사로부터 눈을 보호하기위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에게 범접할 수 없는 비장의 카리스마라도 있는 듯 한 암시를 주기 위해 쓰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시력을 잃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인 맹인들처럼 영적인 깊이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재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맹인들의 눈을 빌어 수평선과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너머의 세상이 보일 거라고 했다.

삶이란 태어나 사라질 때까지의 끊임없는 거듭남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신선하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사춘기라든가 사추기라든가 갱년기에서처럼 나이에 따라 찾아오는 통과의례성 우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삶이란 기쁘다고 생각하는 순간 환희에 찬 것이며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없이 우울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감성적 리듬을 추스르지 못하면 외부적인 압력에 의하여 갱신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런 삶의 터널인가?

날마다 거듭 태어나는 자연을 바라보며 삶을 갱신한다. 사변적인 철리가 없이 숲길을 지나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넘는 것만으로도 내게 있어 삶은 언제나 소중하고 기쁜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 언제나 삶은 내게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 ㅎ